'진안용담호, 희생을 넘어 미래로!'

'제2회 진안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7월 4일 안천면 소공원서 개최

진안군은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안천면 소공원에서 '제2회 진안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안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안군과 K-water 용담댐지사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슬로건은 '진안용담호, 희생을 넘어 미래로!'이다.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진안과 용담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몰민과 군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안용담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부 식전행사에서는 풍물과 난타 공연이 펼쳐지고, 기념식에서는 수몰 전후의 모습을 담은 '용담호의 과거와 현재' 항공영상을 상영해 고향의 추억을 되새긴다. 이어 허호석 시인의 시낭송과 용담솟을팀 어르신들의 공연, 진안용담호의 미래를 기원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수몰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가수 윤수현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수몰 전후 모습을 담은 50여 점의 '추억의 사진전'을 비롯해 교련복을 입고 촬영하는 '인생네컷'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2026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알리는 군정 홍보관,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만전

무주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나서

무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물놀이 안전 계도와 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선제적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9일에는 무주군민의집에서 '2026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 물놀이 관리 요원과 하천 내 계도 요원을 비롯한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물놀이 안전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소방서 유광규 소방교 및 (사)스포츠안전협회 류승민 대표가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인명구조 요령 및 △안전 장비 사용법 등 실습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물놀이 관리 요원들에게는 근무 조끼를 비롯한 모자, 호루라기 등 필수 물품이 지급됐다.

강미경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은 물놀이 안전요원들의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물놀이 안전 관리 특별대책 기간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에 더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사전 교육은 물론, 빈틈없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주군을 찾는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7월 1일부터 후도(무주읍), 지전(설천면), 하굴암(부남면) 관리지역 3개소에 안전요원 14명을 고정 배치하고,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4개 읍면 위험구역 및 비관리지역에서는 13명의 순찰 계도 요원들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환, 밧줄 등의 안전시설을 비치하고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을 비롯해 부표 등도 설치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고원음식 '산골애찬 미식투어' 성황리 마무리

진안군은 청정 식재료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추진한 2026 진안고원음식 '산골애찬 미식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미식투어는 청정 고원지역인 진안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과 지역의 특색 있는 체험관광을 연계해, 진안만의 차별화된 미식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네이버 블로거와 맘카페 회원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 12개 팀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산양삼을 활용한 산양삼주 담그기,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카누 체험, 지역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 먹거리 만들기 등 진안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 이후에는 진안군이 지정한 산골애찬 우수업소를 찾아 진안고원의 청정 식재료로 만든 지역 대표 음식을 맛보며, 진안만의 미식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투어 종료 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체험 후기를 공유해, 진안의 관광과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며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참가자들의 생생한 체험 현장을 담은 미식투어 3회차는 오는 6월 30일 오후 5시 30분 KBS 1TV '투데이 전북'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장수군산림조합, ㈜유니드비티플러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ESG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 산림경영·ESG 상생협력

장수군-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장수군산림조합-유니드비티플러스, 협약 체결

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장수군산림조합, ㈜유니드비티플러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ESG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국산 목재의 계획적인 생산과 공급,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민·관·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일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장,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한상준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계남면과 장계면 일원 878ha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림경영 모델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조림과 숲가꾸기, 임목 수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목재의 계획적 생산 및 공급 △MDF 등 목재산업 원료용 국산재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국산재 공급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니드비티플러스는 국산 원목의 지속가능한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열려

무주군은 29일 부남면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무주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회 육성과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저변 확대를 위해 무주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80여 명의 선수가 4인 단체전 경기를 통해 실력을 겨루며 상호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무주군장애인체육회 회장)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 배성 무주군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을 비롯한 선수 등 1백여 명이 함께 해 장애인파크골프 발전과 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경기가 치러진 부남면 파크골프장은 18,355㎡ 규모로 2022년에 조성됐으며, 동호인은 6개 읍면 2백여 명에 이른다. /무주=손홍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 담당자 사전 교육

진안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11개 읍면 부, 읍·면장과 기본소득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기준,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자격과 실거주 판단 기준, 신규 전입자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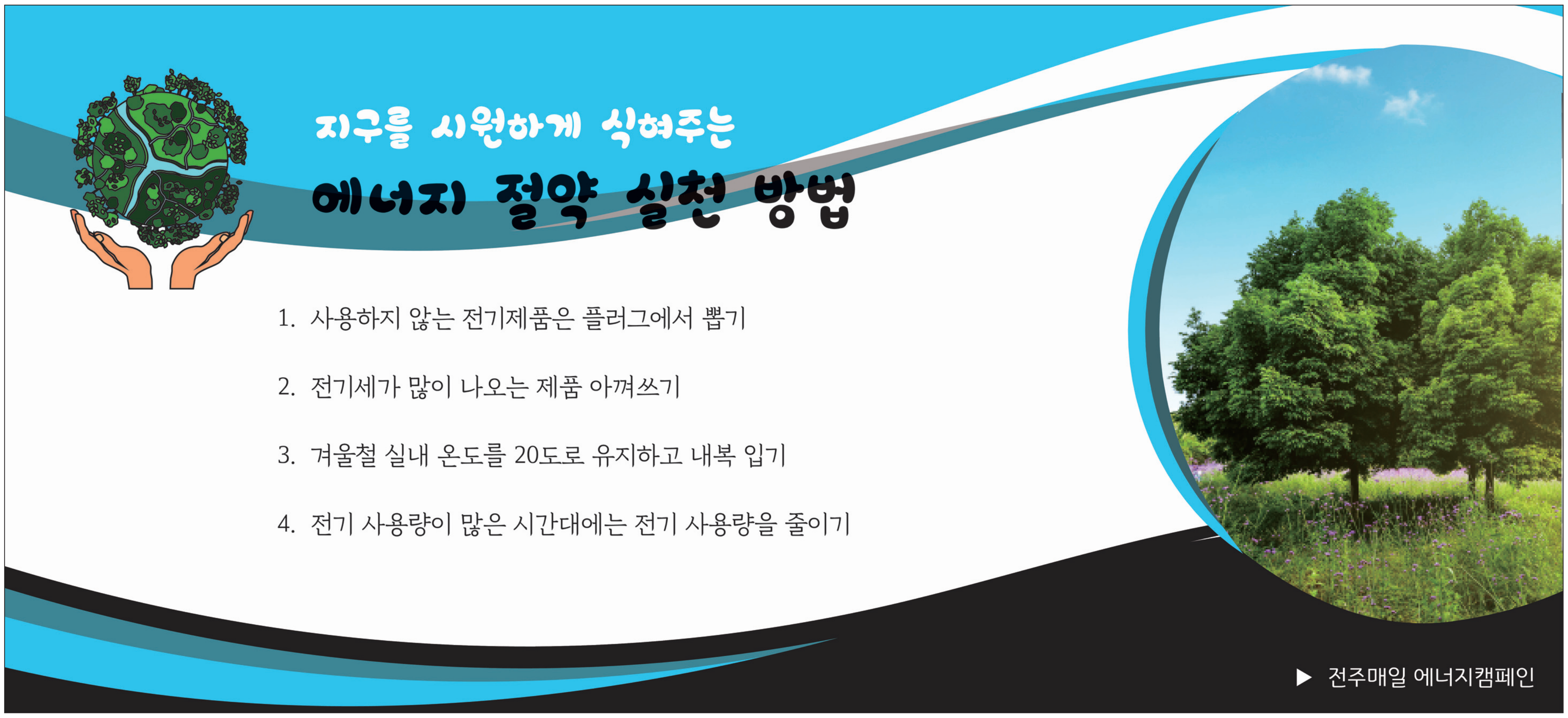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인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이후 신청월의 익월부터 매월 마을조사반의 실거주 확인과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군은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마을조사반과 읍·면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협조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 취약계층 위한 백미 기탁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향숙)는 하절기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5일 번암면사무소에 백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품은 백미 50포대로, 무더위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